

# “주전급 역량 높이고 수단·방법 안 가리고 에이스 키운다”

## 프로야구 GM을 만나다

‘GM(General Manager·단장) 야구’ 시대다. 한국 프로야구도 시간이 흐를수록 메이저리그처럼 현장보다는 프런트 쪽으로 점차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프런트의 중심은 단연 단장이다. 스포츠동아는 오프시즌을 맞아 프로야구 10개 구단 단장들을 차례로 만나 구단의 당면과제와 장기비전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 박종훈 한화 이글스 단장

2018시즌 한화의 키워드는 ‘올 뉴(All new)’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의 아픔을 지우고 강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전하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한용덕 감독과 장종훈 수석 겸 타격코치, 송진우 투수코치 등 이글스의 전성시대를 이끈 인물이 다시 뭉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11월 1일부터 26일까지 일본 미야자키에서 진행된 마무리캠프는 새로운 한화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첫 발걸음이었다.

이 같은 한화의 변화를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박종훈(58) 단장이다. 두산의 2군 감독과 NC의 육성이사를 거치며 ‘육성 전문가’로 인정받은 그는 한화를 강팀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박 단장과 마주앉아 ‘단장론’과 ‘육성론’에 대해 들었다. 이 과정에서 구단의 청사진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우리 리빌딩 하는 게 아니라 팀을 만드는 것 강팀의 조건은 에이스…선수 뎁스 넓혀야 육성은 퍼즐…한 단계라도 잘못 되면 실패 FA 거품? 동급 대우 외인 몸값부터 잡아**

●단장은 건축가, 야구 사람이 최우선 가치  
-단장이란 어떤 자리이며, 단장이 갖춰야 할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장은 팀을 건축하는 사람이다. 설계자보다는 건축가, 팀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단장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혜도 있어야 하고 신뢰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야구 사람이 아닐까. 그래야 넓게 보며 팀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팀은 단단하고 강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끝없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일방적인 사랑은 미움과 갈등과 증오를 낳는다. 즉 내가 야구를 사랑하고, 야구가 나를 사랑할 때 무한한 가능성이 생긴다. 모든 것이 융서되고,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야구인 출신 단장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나는 야구를 하고 있고, 야구를 하는 이들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은 모두 야구인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전문가’ 출신 야구인과 ‘비전문가’ 출신의 야구인으로 나뉘는다고 본다. 양쪽 모두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지만, 아주 큰 약점도 함께 공유한다. 야구에서 가장 큰 콘텐츠가 바로 경기다. 그 경기와 선수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경기 자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전문가 출신 야구인들이 낫다. 하지만 전문가 출신 야구인들은 행정 업무에 부족함이 많다.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것 중 하나가 ‘페이퍼워크’다. 그 부분에서 나와 같은 전문가 출신 야구인은 비전문가 출신 야구인들을 따라갈 수 없다.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야구만 했기 때문에 다양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시선으로 보기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 나는 현장을 지원하고, 야구팀을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확실하, 자신 있게 해낼 수 있다.”

-성공 모델로 손꼽는 구단은 어디인가.

“나름대로 많이 찾아보려 한다. 테오 엡스타인 단장의 보스턴과 시카고 컵스, 조 매든 감독 시절 탬파베이를 주목했다. 탬파베이는 조 매든 감독(현 컵스)이 많은 부분을 만들었다. 컵스가 강팀이 된 데는 엡스타인 단장의 공이 컸다. 어린 시절부터 세인트루이스를 참 좋아했는데, 잠시 부침이 있었지만 지금도 꾸준한 강팀으로 군림하고 있다. 꾸준한 강팀의 대명사는 뉴욕 양키스와 세인트루이스인데, 양키스는 자급력을 앞세워 성적을 내는 구단이라고 감히 판단한다. 세인트루이스는 확실한 플랜과 비전을 세우고 통탄하는 팀이다. 가장 성공한 팀의 모델을 꼽자면 세인트루이스다.”

-세인트루이스의 사례를 한화에 적용할 생각은.

“미국과 한국의 문화가 다르다. 미국의 그것을 벤치마킹하기에 너무 멀리 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야구 인프라’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정말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냉정히 말해 지금의 환경은 너무 열악하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많은 이들이 야구를 사랑한다. 야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존경받는다. 얼마 전 미야자키 마무리캠프 기간에 TV를 봤는데, 일본의 인기인 100명 가운데 이치로가 13번째였다. 3위는 아베 일본 총리, 1~2위는 연예인이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들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야구인들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인기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쉽다.”

-프리 에이전트(FA) 계약에 거품이 있다는 지적



한화 박종훈 단장은 KBO리그 1군 감독 출신으로는 최초로 단장직에 오른 인물이다. “단장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야구 사람”이라고 외친 그는 한화를 꾸준히 성적에 낼 수 있는 강팀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에 대한 솔직한 생각이 듣고 싶다.  
“현 상황을 보면 거품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공급이 있으니 수요가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계약 총액의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다. 최근에는 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FA와 외국인선수다. 외국인선수의 몸값도 굉장히 비싸다. 몇 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FA에게 100억원을 주면 거품이라고 한다. 이들은 7~9년간 팀에서 입지를 보여주고

존재감을 입증한 선수들이고, 앞으로의 기대치도 굉장히 높다. 그런데 그들이 준하는 몸값을 외국인선수들이 받는다. 당연히 불확실성도 FA와 견주어 높다.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가 7~9년간 구단에 공헌한 선수들과 동급으로 가고 있다. 물론 지금의 환경에서 FA 선수들이 지금과 같은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 몸값이 높은 것은 맞는데,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어쩔 수 없다.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오

히려 외국인선수 몸값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면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육성 전문가’ 박종훈이 그리는 한화의 미래  
-한화의 리빌딩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최선인가.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리빌딩을 하는 게 아니다. 팀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리빌딩은 기존의 것에 준해서 뭔가를 바꾸는 것인데, 이는 사용하고 싶지 않은 단어다. 우리 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주전급 선수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육성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다. 감독을 잘 만났고, 선수를 잘 준비시킨 결과라고 본다. 그렇게 선수를 준비시키며 욕도 많이 먹었다. 내가 육성하겠다고 마음먹은 선수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기에 그 관심을 높이기 위한 작업부터 했다. 타인으로 부터 ‘대체 무엇을 원할까’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선수를 훈련시키며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라고 멋있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감독을 잘 만난 육성파트의 일부’라고 본다. 2군 감독과 육성본부장, 육성이사로서 감독을 잘 만났기 때문에 진행을 잘했다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닐까.”

-박 단장에게 육성이란 어떤 의미인가.

“하나의 퍼즐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선수가 성장하기까지 과정이 있다. 어린 시절 모습을 보고 스카우트팀에서 점찍고, 스카우트가 점찍은 선수를 육성해서 다듬고, 마지막으로 감독이 확신을 갖고 이용하는 것이다. 그 단계마다 퍼즐조각을 하나라도 잘못 맞추면 육성이 안 된다. 스카우트, 육성군, 2군, 1군감독까지 진행 과정이 순조로우면 좋은 선수가 만들어진다. 만약에 하나라도 빠졌다면, 그 유망주도 성장하기 어렵다. 이는 공동작업이고, 서로 같은 마음과 생각, 소통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지금의 한화를 냉정하게 진단한다면.

“과도기다. 하지만 명확한 플랜은 있다. 비행기나 배, 자동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준비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선수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스타는 아니더라도 야구선수라는 타이틀만으로도 많은 존경을 받는데도 정작 선수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게 우리 선수들의 현주소라면 우리가 아무리 ‘변화’라고 강조해도 변할 수 없다. 하지만 본인의 노력에 따라 빨리 바뀔 수도 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뛰우고자 하는 비행기에 탑승할 때는 많은 것이 변화했기를 바랄 뿐이다. 그때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구단의 당면 과제와 장기 비전은.

“길게 봤을 때는 꾸준한 강팀이고, 단기적으로는 주전급 역량을 확장하는 것이다. 꾸준한 강팀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에이스다. 에이스, 팀의 1선발은 주로 상대 팀 에이스와 맞붙는다. 그런데 1선발의 승률이 5할이 안 되면, 팀의 승률도 5할을 밑돌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약한 팀이 되는 것이다. 에이스는 그만큼 중요한 존재다. 우리 팀이 에이스를 만들어낼 때까지 ‘템플’을 넓힐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에이스가 탄생하면 더할 나위 없다. 강팀이 되기 위해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에이스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1년 뒤에는 머리가 많이 아프겠지만, 가슴은 따뜻할 것 같다. 한용덕 감독을 비롯한 현장 스태프와 신뢰도 더욱 두터워질 것이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 한화 박종훈 단장

▲출생=1959년 6월 12일(58세) ▲학력=석좌초~신일중~신일고~고려대 ▲프로선수 경력=OB(1983~1989년·1983년 신인왕·통산 679경기 타율 0.290·32홈런·231타점·71도루) ▲지도자 경력=LG 코치(1994~1996년)~현대 코치(1997~2002년)~SK 2군 감독(2003년)~SK 1군 주루코치(2004~2005년)~SK 2군 수석코치(2006년)~두산 2군 감독(2007~2009년)~LG 감독(2010~2011년) ▲프런트 경력=NC 육성이사(2012~2015년)~NC 고양본부장(2015~2016년)~한화 단장(2016년~)

## 배구

# 시즌 첫 승점 3점…환하게 웃은 GS칼텍스

차상현 감독 “승수 비해 승점 적어” 아쉬움  
인삼공사에 깔끔한 승리…승점 10점 돌파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과정이라는 말이 있다. 만족스러운 과정을 거쳤으면 결과가 아쉽더라도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최상의 시나리오는 역시 만족스러운 과정과 그에 뒤따르는 눈부신 성과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바라보는 것은 프로에게 있어 결코 욕심이 아니다.

GS칼텍스는 29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17-2018 V리그’ 인삼공사와의 2라운드 맞대결에서 세트 스코어 3-0 승리를 거뒀다. V리그 최고의 외국인선수인 알레나가 있는 KGC

를 받치며 삼강판대 공세를 이어갔다. 리베로 나현정은 환상 디그를 계속하며 인삼공사의 공격진을 무력화시켰다. 문명화와 김유리는 설 세 없이 유효블로킹을 만들어 상대주포 알레나를 원천봉쇄했다.

GS칼텍스는 올 시즌 유독 승점 쌓기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인삼공사전에서 승리를 거두기 전까지 4승을 만들었으나 벌여놓은 승점은 8점에 불과했다. 4번의 승리를 모두 5세트 승리로 가져가 승점을 매번 2점씩밖에 챙길 수 없었다. 투혼의 과정은 훌륭했으나 손에 쥔 결과물이 아쉬웠다. 차상현 감독은 경기 전 “우리가 승수에서는 타 팀에 많이 밀리지 않는다. 승점에서 아쉬움이 있는데, 오늘은 꼭 승점 3점을 따고 싶다”며 필승 의지를 드러냈다.

차 감독의 의지가 전해졌던 것일까. GS칼텍스 선수들은 첫 세트부터 기세를 올렸다. 듀크의 맹활약을 필두로 강소휘와 표준주가 좌우 날개

를 받치며 삼강판대 공세를 이어갔다. 리베로 나현정은 환상 디그를 계속하며 인삼공사의 공격진을 무력화시켰다. 문명화와 김유리는 설 세 없이 유효블로킹을 만들어 상대주포 알레나를 원천봉쇄했다.

GS칼텍스는 이제까지 승점을 획득하는 과정이 좋곤 여수선했다.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다가도 범실로 세트를 내주는 경우가 잦았다. 그러나 인삼공사전은 그야말로 깔끔했다. 공수에서 흠 잡을 것 없는 경기력으로 첫 승점 3점을 획득한 것이다. GS칼텍스 선수들이 경기 끝난 후 포효한 것은 단순히 승점 3점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들 스스로가 만든 수준급의 ‘과정’과 ‘결과’ 덕분이었다. 장흥 |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파토우 듀크(19번) 등 GS칼텍스 선수들이 29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17-2018 V리그’ KGC인삼공사전에서 득점 후 환호하고 있다. 듀크는 이날 양 팀 통틀어 최다인 23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세트스코어 3-0 완승을 이끌었다. 장흥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